

식민지 조선의 사치 담론에 대한 여성의 대응과 의의*

권 미 경**

목 차

- I. 머리말: 여성과 사치
- II. 사치 배척 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
- III. 사치 담론장의 여성 등장
- IV. 맺음말

국문초록 | 남성 주도의 담론에서 여성은 종종 사치 소비의 주체로 비난받아 왔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여성도 그러했다. 특히 모던걸 이미지 속의 근대 여성은 그들의 외모를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사치 소비의 주체로 지목받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았다.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지배담론에서 여성이 사치 소비의 열성적 주체로 비난받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여성의 대응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의 신문과 잡지 등의 사료를 살핀 결과, 여성들은 자신을 향한 사치 담론에 침묵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기획하여 주도한 민족주의적 사치 배척 운동의 능동적 주체로도 활약했는데, 이는 지배 논리에 대한 동조인 동시에 여성의 사회 참여와 신장된 권력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했다. 또한 사치 담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반응으로, 여성들이 담론장에

* 본 연구는 출판된 적 없는 본인의 학위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심한 피드백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權漢景,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mkwon@kookmin.ac.kr

투고일: 2021. 5. 13. 심사완료일: 2021. 6. 7. 게재확정일: 2021. 6. 10.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0..225>

직접 등장해서 자신들을 둘러싼 사치의 비난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본고는 이를 지배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이상의 발견과 해석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사치 담론에 대한 여성의 능동적 역할과 전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핵심어 | 사치 소비, 담론, 식민지 조선, 여성, 주체

I. 머리말: 여성과 사치

1990년 갤러리아 백화점이 고가 수입품 전문 매장을 명품관으로 개장하면서 서부터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한 명품(名品)이란 용어(김상기, 2012:174)는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주로 ‘사치품’으로 불렸다. 명품과 사치품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거의 동일하지만, 사치품이 명품에 비해 부정적 가치판단 혹은 도덕적 경계심을 환기한다. 사전적 정의에 있어서도, 사치품(奢侈品)은 “분수에 지나치거나 생활의 필요 정도에 넘치는 물품”이며, 사치(奢侈)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으로 정의되어,¹⁾ 정도(正道)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분수에 지나치거나 필요 이상이라는 정의는 시대, 사회, 문화, 개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Berry(1994:199) 또한 사치(luxury)의 의미와 정의가 시대와 가치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이에 사치가 정치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사치의 기준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고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사치가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치적 개념에 가깝다면, 이를 통해 소외되거나 비난받는 ‘대상’과 ‘명분’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근현대 한국의 대중적 사치 소비(luxury consumption) 담론에서 여성이 지속적으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로 호명되는 현상에 주목하여(권미경, 2017), 그 차별적 담론에 대응하는 여성의 양상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성이 사치의 주체로 지명되는 현상은 인류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사례를 동서고금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Sekora(1977), Berry(1994), Adams(2012)도 서양 역사에서의 사치의 개념과 논쟁을 살피고 있다. Sekora(1977:29)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사치를 우주와 공동체(도시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소로 인식했음을 보여주었다.²⁾ 사치가 지배 계급인 엘리트 남성 시민들로 대변되는 이성적 질서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기원 후 초기 기독교 교리에서도 사치 소비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사치는 선악의 이분법적 대립 속에서 악에 편입되어, 기독교적 절제와 정숙함에 반대되는 여성의 성적인 타락과 결부됐다(Berry, 1994:88). 이와 같이 사치는 지배담론에서 인간 정신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기질로 배척받았으며, 또한 여성으로 대상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의 사치 비난 담론은 18세기에 이르러 신계급과 중상주의의 부상으로 변화를 맞게 되어, “사치의 도덕화 해제(de-moralisation of luxury; Berry, 1994)”라고 불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근대적 소비사회를 향한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설혜심(2014, 2017)의 연구도 소비와 여성에 대한 통찰을 준다. 설혜심(2014)은 여성과 소비의 역사를 다룬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1. 검증적 역사학과 소비, 2. 사치 동물과 성적 대상, 3. 내셔널리즘과 여성 소비자, 4. 새로운 상품과 여성노동, 5. 여성과 소비의 정치성”이라는 다섯 키워드로

2) Berry의 저서 *The Idea of Luxury: A Conceptual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20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살필 수 있는데, 논의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 사치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곧 정신적 약함/미성숙함의 표시였기 때문에 남성답지 않은 기질로 판단됐다. 나아가 남성답지 않은 기질을 가지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부패를 이끄는 요인 및 국가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치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리하였다. 본고는 특히 다섯 번째인 ‘여성과 소비의 정치성’에 주목한다.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의 영역으로 포섭된 여성이 남성 중심의 정치적 공론장에 배제되었다고 해석하거나, 반대로 소비를 통해 여성이 사회적 참여와 해방을 성취했다고 해석하거나, 혹은 해방까지는 아니지만, 여성이 처한 상황에서 Michel de Certeau(1984)³⁾ 식의 나름의 대응과 저항을 한 것이라 해석하는 견해들이 언급된다(설혜심, 2014:270-274). 이들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과 소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주장이다. 또한 두 번째 ‘사치 동물과 성적 대상’에서 소개된, 르네상스 시대까지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았던 여성의 사치가 18세기 이후에도 매춘과 도박 등과 유비되며 여전히 ‘도덕화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공명한다.

설혜심(2014)의 연구에서는 서양의 문헌들이 검토되었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사치 소비와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정인숙(2012a)의 연구는 규방가사류, 행장이나 묘비문류, 남성교훈서류 등을 살핀 결과, 조선 후기의 도시화와 함께 부상한 여성의 소비에 대한 담론이 절제에

3) Michel de Certeau는 저서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에서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개인도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음을 말하며, 이를 강자에 대한 약자의 승리(victories of the “weak” over the “strong”), 현명한 속임수(clever tricks)로 칭한다. Certeau가 말하는 일상적 실천에는 말하기, 읽기, 걷기, 쇼핑하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걷는 것을 예로 들자면, 도시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길을 걷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길이 나 있는 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고, 지름길을 택하기도 하고 샛길로 새기도 한다. 일을 하도록 계약된 회사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연애편지와 같은 사적인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질서를 끊임없이 전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Certeau가 일상생활의 실천으로 예시를 든 것들이 과연 권력이나 질서에 균열을 줄 만큼 충분히 강한 것인지, 또한 그것은 실천, 발명, 창조라기보다는 원래 그러했던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닌지 등을 비판할 수 있다.

대한 강조, 유행을 따르지 못하는 개탄(소비에 대한 욕망), 이에 따른 중도(中道)의 강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어 20세기 초 근대 전환기에도 여성들의 소비가 서울의 도시화와 근대 계몽 담론 속에서 음녀 이미지로 표상화되었음을 밝혀, 부정적 여성 형상이 지속되며 변모했음을 보였다(정인숙, 2012b).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 비난의 대상이 된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은 침묵하고 있었을까?
- 사치 소비를 통해 여성이 사회적 참여와 해방을 성취한 면은 없었을까?
- 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Michel de Certeau(1984)가 주장한 권력에 균열을 주는 전술(tactic)은 없었을까?

본고는 소비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공고히 결합하고 있어 ‘여성과 소비의 정치성’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치 소비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에 활발히 연구된 모던걸 등으로 표상되는 식민지 조선의 사치하는 여성을 향한 비난 담론 너머, 이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민지 조선의 사치하는 여성은 담론의 희생자 혹은 악녀로만 표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1920년대에 일어난 물산장려운동에서 여성들이 사치 배격의 주체로 활약한 점과 사치 담론이 생성되는 공론장에서 비난에 반박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근거로 들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Ⅱ. 사치 배척 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

3·1 운동 이후 평양을 시작으로(1920년)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어 물산장려운동이 펼쳐졌는데, 이는 ‘민족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애국심

을 바탕으로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경제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조선 사람이라면 가급적 조선의 물산을 사용하여 조선의 산업을 돕고, 근검절약하는 생활 습관 속에 값비싼 외래 사치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었다. 조선 민중은 이와 같은 취지에 호응했고, 물산장려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범국민적 소비 실천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산업은 급증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을 맞추기에 역부족이었고, 이는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토산품의 가격 상승은 일반 조선인의 경제에 부담을 주었고, 일부 상인과 자본가만이 경제적인 득을 본 셈이 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비난했으며, 결국 물산장려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맞물리면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침체됐다.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물산장려운동이 현실에서 실현되기에는 국산품이 미흡했던 사정을 알 수 있다.⁵⁾ 예를 들어 외래 사치품이라 일컬어지는 일본의 광목, 영국의 옥양목, 중국의 비단을 대체할 마땅한 국산품이 없었던 것이다. 비단 고급 옷감과 같은 사치품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에 있어서도 외국 상품의 의존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었다.⁶⁾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의 기치 아래, 국산품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수입품은 물론 외래 사치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이 주장됐고, 외래품의 사용은 사치의 문제로 번지며 공격받았다.

[1] 보라. 우리 현재 조선민족의 일용품의 전부가 뉘의 지배를 받는가. 입는 것이 他國 物品 아님이 업스며 쓰는 것이 舶來品 아님이 업스며 심지어 먹는 것까지 酒, 餅, 菓子砂糖, 醬, 及其 일반요리가 서양 것이 아니면 일본 것이며 중국 것이라 그리하여 日日時時로 돈냥 돈푼이 날개를 넓히 들고 해외로 날아갈 뿐이니 우리의 경제형편이 점점 그 어떠한 것을 알아볼 수

4)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154쪽.

5) R生, 「物産獎勵半年間」, 『동아일보』, 1923.9.23.

6) 「婦人漫評: 사치품과 물산장려」, 『동아일보』, 1928.2.7.

있겠다. (……) 현재 우리 민족으로써는 民族的 克己心을 振發하여 비록 사치 치 못 할지라도 비록 高價가 된다 할지라도 自家의 물품을 애용하여 國민적 경계심을 喚起하여야 할지라.⁷⁾

위의 인용 [1] 논설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치품의 개념이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민족적인 가치로 규정되고 있는 점이다. 즉, 고가(高價)의 물건이 사치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가의 물건일지라도 조선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애용해야 하며, 경계해야 할 것은 “돈냥 돈푼이 날개를 넓히 들고 해외로 날아갈 뿐”인 외제품이다. 외제품은 민족적 극기심(民族的 克己心)을 진발(振發)하여 ‘사치하지 않아야 할 물건’으로 규정된다. 물산장려운동의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여 발표한 활동 방침이 첫째, 산업장려, 둘째, 애용장려, 셋째, 경제적 지도에 있으며,⁸⁾ 이 모든 방침의 중심에 조선의 산업, 상품, 사람이 존재하는 바, 무조건적인 민족적 소비가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물산장려운동에는 여성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주요 담론에서 사치의 주체로 지목되어 비난받았던 여성이 사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물론 비난 담론 속의 사치하는 여성과 사치 배척 운동을 실천하는 여성의 집단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사치와 관련한 담론과 현실에서 일방적인 비난 대상만이 아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또한 지배담론의 남성처럼 민족적인 각성을 하여 애국적 운동을 주창하는 모습은 여성의 신장된 사회 참여와 정치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대중에게 민족주의적인 소비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외제 사치품과 여성을 비난하는 남성의 논리를 답습했는데, 이는 지배담론에 대한 묵시적 동조로도 해석할 수 있다. ‘토산애용부인회’를 통해 이를 살필

7) 李敦化, 『眞理의 體驗』, 『개벽』 제27호, 1922.9.1., 33~34쪽.

8) 조기준, 『朝鮮物産獎勵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歷史의 性格』, 『역사학보』 41, 1969, 91쪽.

수 있다. 토산애용부인회는 서울의 가정주부가 주축이 되어, 창덕궁내인(昌德宮內人)과 직장여성 등 50여 명이 모여 1923년 2월 5일 서대문정 민우회관에서 창립한 단체로,⁹⁾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선언 일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그 運動의 鎭頭에 선 사람은 모두 다 男子이엿도다. 勿論 오늘날 우리의 社會組織이 男子本位라 무슨 運動이든지 男子가 그 先頭에 서는 것은 避치 못할 形勢이어나와 將來의 新社會를 開拓함에는 반드시 男女協助의 方針에 나가야하겠다함이 우리의 理想이로다.¹⁰⁾

[3] 제각기 가댁으로부터 실행하여야 할 것임으로 가댁의 주부가 특별히 이에 깨다름이 잇서야 하며 더욱 사치하는 악습으로 말하면 실로 부인계급이 심함으로 부인들의 철저한 깨다름이 업고는 이 운동도 완전하게 이룰수 업는 터인 바¹¹⁾

이처럼 토산애용부인회는 남성본위의 사회에서 남자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이었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사회에 서는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함께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주요 세력에 동조함으로써 정치적 참여권을 얻은 것이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물산장려운동에서 여성(부녀)의 역할이 남자보다 더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해에는 토산애용부인회와 동일한 목적으로 역시 50여 명의 부인이 모여 구성된 미풍회(美風會)도 만들어졌고, 두 단체는 하나로 합쳐져서 활동을 전개했다.¹²⁾ 이들은 주로 가정주부로 구성된 만큼, 가정의 살림과 소비를

9) 「土產愛用婦人會」, 『동아일보』, 1923.2.7.

10) 「土產愛用婦人會의 成立」, 『동아일보』, 1923.2.8.

11) 「土產愛用婦人會」, 『동아일보』, 1923.2.7.

12) 「兩婦人會合同」, 『동아일보』, 1923.4.15.

책임지고 있는 가정주부의 참여를 공통적으로 호소했다.¹³⁾ 또한 자신과 같은 가정주부, 즉 부인계급이 사치하는 악습이 심하다고 평하는 지점을 통해 자기반성과 거리두기를 동시에 함으로써, 사치하는 여성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효과적으로 이룬 것으로 보인다.

[4] 시내 덕동 리화녀자전문학교 학생일동은 이번학기부터 사치한 옷감을 절대로 입지 안키로 가결되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즉 사치 배척 운동인 동시에 또 조선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합니다. 조선물산장려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평하기로 하고 위선 사치배척에 대하여 우리의 견해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전 사회의 현상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사치배척운동은 광범한 의미를 가질수업는 운동입니다. 오죽 소수 유복한 사람의 운동일뿐입니다. 조선동포의 대부분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것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¹⁴⁾

인용 [4]는 동아일보의 「부인시평(婦人詩評)」 코너에 게재된 논설인데, 이를 통해 일반주부뿐만 아니라 여학생도 사치 배척 운동으로서의 조선물산장려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1927년 10월, 이화여자전문학교의 학생 일동이 사치스러운 옷감의 옷을 입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식민지 근대의 여성 담론에서 사치하는 여성으로 활발히 표상화되는 그룹 중의 하나가 바로 여학생인데, 인용한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여학생은 사치하는 대상으로 낙인찍힌 상태로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의 주류 메시지에 동참하며, 사치 배척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는 사치하는 여성이라는 자신들에게 씌워진 굴레, 즉 지배담론을 뒤엎는 전복적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지배담론에 동조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치를 배격하는 여성이 됨으로써 여학생=사치라는 지배

13) 城東生, 「物産獎勵는 家庭서부터 (二)」, 『동아일보』, 1929.2.14.

14) 「侈奢排斥運動 梨花專門校에서」, 『동아일보』, 1927.10.10.

담론을 뒤엎는 것이고, 여학생이 앞장서서 사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와 주장은 지배담론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계층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사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강자와 합류하여 주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유까지 가졌다는 점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일화에 대해 논한 논설자 역시 사치 배척 운동이 중류 계층 이상에 속하는 소수자의 운동임을 지적하며, 계층성을 언급한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울고 있는 동포들이 대부분인데 사치 배척 운동 자체가 전국민적 파급성을 떨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인으로서 여학생은 사치 배척 운동만으로 과업을 끝내지 말고, 개인 향락주의를 멀리하라고 일침을 가한다.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로 해석된다. 정리하자면, 여학생들의 사회 참여의 원동력이 계층적 여유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계층의 문제를 떠나 여학생들의 참여는 능동적 사회 참여 주체로서의 여성의 가능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여학생들과 더불어 사치 소비의 주체로 주목받았던 기생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물산장려운동을 통해 검소함을 다짐한 현상(심옥경, 2005:57-58)도 흥미롭다. 식민지 조선의 대중 담론 속에서 유한부인(중산층 이상의 여성), 여학생, 기생, 카페 여급 등이 각각의 직업, 나이, 교육 배경, 계층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던걸'이라는 하나의 모호한 대상으로 수렴된 것처럼(서지영, 2006: 210-222), 실제 현실에서도 유한부인, 여학생, 기생 모두가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치 배척을 매개로 한 사회 참여의 주체가 된 것이다. 기생은 여학생에 비해 교육 배경이나 사회 계층에 있어 열세한 위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에 상관없이 하나의 당당한 여성 집단이 되어 정치적 실천을 한 것이다.

설혜심(2014:270-274)에서 밝힌, 20세기에 여성이 소비자 운동의 정치적 주체로 호명되는 현상이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공적 담론장에 등장한 여성의 존재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동시에, 남성의 지배담론에서 생산된 목소리의 재생산이자 동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력이 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여성도 사회 참여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치 배척 운동의 주체로도 활약할 수 있었지만, 사치 배척 운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여성은 남성의 주류 담론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사치 배척 운동에서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는 여성을 사치 소비의 주체로 지목하는 지배담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며, 남성이 사치 담론에서 만든 차별과 비난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여성들이 스스로를 혹은 자신들과 거리두기를 한 타여성들을 계몽하고 있다. 즉, 이들은 남성 주도의 지배담론의 대리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한 점에는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지배담론에서 여학생, 주부, 기생 등을 포함하는 모던걸이 사치하는 탐욕적 존재로, 민족의 가난을 등한시하는 이기적 존재로 활발히 표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비되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등장은 기존의 담론에서 생산된 왜곡된 여성상을 수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한 여성의 사치 배척 운동을 지배담론에 대한 동의로만 보는 것보다는, 지배담론에 대한 동의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영역 구축이라는 이중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성이 사치 배척 운동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남성과 대등한 사회적 참여를 누리고, 나아가 사치를 배격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스스로 제시함으로써 담론상의 사치하는 여상상에 균열을 내었기 때문이다.

Ⅲ. 사치 담론장의 여성 등장

[5] 일반부녀들의 의복 사치야말로 넘우 심하다고 하겠습니까. (……) 그러나 전테로 보아서 사치하는 품으로 과연 과도기에 처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린 녀학생들까지라도 보통 세루 혹은 양복감으로 치마를 해 입을 것이라든지 이상아릇한 구두모양과 여러 가지 색의 구부발이 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든지 당연 조선부녀에게는 넘치는 망녕된 차림이라고 하겠습니까.¹⁵⁾

위의 논설 [5]는 1929년 1월 1일의 동아일보 특집기사로, 조선 여성의 10년간 패션과 유행의 변화를 논하고 있다. 필자는 논설에서 일반부녀, 여학생 등으로 지목되는 조선 여성들의 의복 사치가 심한 점을 개탄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며, 당시 생산된 사치 소비에 대한 비난에서 여성은 대개 부정적 시선으로 묘사됐다. 민족적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허영이 가득한 소비를 하는 것은 이기적 행동이며, 사치의 주체로 몰린 여성은 담론에서의 비난의 표적이었다. 전근대 조선에서의 사치가 주로 신분제를 와해시키거나 유교적인 검박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훼손시킬 가능성 때문에 문제시되었다면, 주지하듯 근대 식민지 조선의 사치 문제에는 계층과 젠더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젠더와 관련해서 남성의 사치에 대한 비난도 물론 있었지만,¹⁶⁾ 당시의 사치 담론을 검토해

15) 「朝鮮女子의 十年間 衣服束髮化粧의 變化」, 『동아일보』, 1929.1.1.

16) 우드퍼드(『허영의 역사』, 세종서적, 1998, 12쪽)를 통해 서양에서의 남성의 사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저자는 중세 이후 남성의 허영이 여성보다 심해졌음을 말한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당연히 모던걸과 함께 모던보이가 있었다. 모던보이의 화려한 패션은 남성 지식인의 표식이었기도 했지만(김주리, 『모던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근대적 패션의 풍경』, 살림, 2005, 16~22쪽), 지나친 남성의 허영은 사치 담론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사치 담론의 주요 생산자 또한 남성 지식인이었다는 점이다. 남성 지식인은 감정과 욕망으로 추동되는 여성을

보면 여성에 대한 비난이 우세함이 관찰된다. 이는 당시의 여성이 민족적 각성을 요하는 식민지 상황의 국민-여성인 동시에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봉건적 남녀질서에 있어서의 약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남성 주도의 담론에서 여성이 사치의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진 것에 대한 여성의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치의 비난을 둘러싸고 일종의 남녀 간 권력투쟁이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족적 소비 운동이라는 명분을 통해 공공의 장소에 등장한 여성이 사치 배격의 능동적 주체로 활약했듯, 여성은 남성 주도의 담론장에 등장하여 사치하는 여성상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냈다. 담론장에 침투한 여성의 목소리는, 지배담론의 공간 속에서 담담히 오류를 교정해 주거나 적극적인 목소리로 균열을 일으켰다. 담론장에서 여성의 사치를 반박하는 주체에는 지식인 여성이 포함됐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모순적 상황을 지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식인 여성이 지배-피지배 구조에서 일종의 중간자가 되어, ‘담론상 하위주체’¹⁷⁾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꾸짖는 이성적 존재였는데, 그들의 내부에도 사치하는 모던보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모던결과 모던보이가 여러 군상을 포함하고 있기에 혼종성을 떨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이들의 다면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17) 그람시(『그람시의 옥중수고: 2편』, 거름, 1999)는 농민, 노동자와 같은 피지배적 하위주체 계급(subaltern classes)이 상부구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대신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간자적 위치의 지식인의 역할과 주체성을 강조한다. 반면 스피박(『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은 지식인 엘리트가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인도의 경우를 살펴볼 때 지식인 계층이 하위주체의 대변인이라기보다는 서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피박은 하위주체가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하위주체(subaltern)는 명백한 지배-피지배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억압받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사치하는 여성을 피지배적 ‘하위주체’로 상징

있다.

[6] 두 번째 질문에 「우리 학교 학생이 사치하구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시고 어디까지 자기에게 합당한지 그것을 선택할줄알고 또 몸에 잘 맞도록 만들어 입을줄을 아는 것뿐입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보다 더 값싼 물건을 쓰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김선생님은 이와같이 설명하신다.¹⁸⁾

인용 [6]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특별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와 관련된 사치의 문제를 보여준다. 인용 [4]에서 1927년 이화의 학생들이 사치 배척 운동의 주체로 나선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6]의 글에서도 해당 학교 학생들이 당시 사치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동의 이화여학교를 찾은 기자가 김활란 선생을 만나 대담하는 과정에서 사치하는 이화의 학생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기사를 보면 사치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전체 내용에서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구성에서 큰 글씨의 부제목으로 “사치한다고 소문이 난 것은 오년이 라하는 김선생말씀”이 배치된 것도 여학생의 사치가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화제성이 있는 소재임을 보여준다. 답변에서 김활란 선생은 이화의 학생들이 특별히 사치한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며,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수동적 답변이자 매우 온화한 방식에서 이루어진 소극적 항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성과 대등한 지식자본을 가진 여성 지식인이 주요 담론장에 던진 편견을 교정하는 목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남성 주도의 담론에서 여성 집단이 사치 소비의 비난 대상이 되는 것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본고에서는 왜곡되고 있는 담론상의/상상 속의(imagined) 여성을 “담론상 하위주체”라 했음을 밝힌다. 이어진 논의에서 밝혀지지만, 담론상 하위주체로 상정된 여성은 실제 사람으로 나타나 그림시(1999)가 말한 지식인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기도 했으며, 스피박(2013)이 말한 스스로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주체가 되기도 했다.

18) 「女學校를 차저 貞洞梨花女學校」, 『중외일보』, 1929.9.11.

있다.

지배담론의 편견에 대한 보다 투쟁적인 방식의 항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성들이 비난의 담론장에서 편견을 교정해 주는 역할에서 나아가, 담론장에 토론의 공간이 마련되었을 때 하나의 주도적인 목소리로 등장하여 때로는 남성들을 공격하며 당당히 자신들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의 사치와 다를 바 없는 남성의 사치를 거론하거나, 사치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봉건적 남녀질서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은 남성 주도의 담론장에 대등한 참여자로 등장해, 근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치 비난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인용 [7]에서도 한 여성(동아부인상회 이완구 여사)이 사치에 대한 남성의 이중적 태도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니, 조선의 남성 손님들은 박래품(외제품)을 선호하는데, 여성의 사치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필자는 본인이 남자라면 조선물품을 사용하겠다는, 남성의 지배담론에서 생산된 무소불위의 민족주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조선의 물품보다 서양이나 일본에서 온 박래품과 사치품을 선호하는 남성의 허영을 공격했다.

[7] 셋째로 내가 남자가 되었으면 朝鮮物品을 자랑하는 정신잇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녀자들도 대개 그러하거니와 지금 조선남자들은 더욱히 서양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곳에서 온 물건이 아니면 아니 쓰는 모양입디다. 내가 장사를 조금 하여보니까 舶來品이라 하면 남자들은 그 무엇을 물론하고 잘 사는 모양입디다. 나는 남자가 되었으면 순전한 조선 무명으로 저고리와 바지와 기타 두루막까지 하여 입고 녀자들에게까지 모범을 보이며 또는 사회에게 크게 여론을 일으키겠습니다.¹⁹⁾

19) 「男子가 女子로 女子가 男子로(四)」, 『동아일보』, 1922.1.5.

‘내가 남자라면 조선물품을 자랑하는 정신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여성의 일침은, 외래 사치품을 사용하는 여성의 행동이 반민족적이므로 옳지 않다는 남성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강자가 약자를 비난할 때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상대를 전복시킨 유쾌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성 화자는 나아가 자신이 남자라면 검박한 조선 의복을 착용하여 여자들과 사회 전체에 모범을 보이겠다고까지 하며, 사회의 강자로서의 남성에 대한 책임감까지 요청하며 공격을 심화한다. 여성을 둘러싼 사치 비난의 논리에 존재하는 이중성 혹은 허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공론장에 기습적으로 등장한 여성의 논리적 항변은, 남성 생산자가 주도하는 지배담론에 미세하고 신선한 균열을 냈음에 틀림없다.

잡지 『신여성新女性』에서도 사치를 주제로 한 남녀의 논쟁을 살펴볼 수 있다. “여자가 허영이나? 남자가 허영이나?”라는 주제로 남성 대표 HS生과 여성 대표 AS生이 토론한 것으로, 8쪽 가까이 되는 긴 분량이다.²⁰⁾ 내용을 정리하면, 남자가 여성의 의복과 태도에 허영이 많음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태도는 노예적 상태와 다를 게 없다고 한다. 이에 여자는 여성이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이유는 남성적 지배 질서에 기인한 것이며, 무엇보다 남성의 사치가 여성의 사치와 비교해 덜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 남자 HS生은 여성의 사치는 남자와 무관하게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남성의 사치는 일부의 “부랑청년” 또는 “돈냥 잇는 놈의 집 자식”들이 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반박한다. 또한 이에 반해 여성의 사치는 보다 일반적이며, 지식인 여성에게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남자 HS生이 ‘지식인 여성’을 사치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지점은 매우 흥미롭다. 근대에 등장한 지식인 여성상이, 근대 남성의 입장에서는 봉건적 질서 속에서 고착된 남성의 기존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20) HS生, AS生, 「여자가 虛榮이나? 男子가 虛榮이나?: 綠窓 討論」, 『신여성』 제4권 제7호, 1926년 7월, 46~53쪽.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지식인 여성이 남성의 심리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사치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토론에서 여자 AS生은 여성의 사치도 “부랑녀자”나 “매음녀자”에게 발견되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모든 여성을 사치의 주체로 대상화하는 것은 남성들이 오랫동안 여성을 무시했던 관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한다. 남자가 주고받는 토론 속에서 여자 토론자가 여성의 사치 문제를 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킨 점이 흥미롭다. 남성이 여성의 사치에 부여한 부정적 혐의에 대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모를 꾸미고 사치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 및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구조를 만든 장본인으로서의 남성의 책임을 지목하는 것이었다. 즉, 여성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 꾸며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또는 불합리함까지 논의를 확장시켜,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 혹은 사회를 주도하는 남성의 문제로 환치시킴으로써 재차 지배담론의 권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물론 『신여성』이라는 잡지가 여성이 중심이 되는 담론장이라는 점이 여성들로 하여금 더 자신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겠지만²¹⁾

21)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여성의 사치를 해석하는 주장은 다음의 논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을 근본적으로 허영으로부터 버서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래의 가명태도와 남녀의 不平等한 地位關係, 딸아서 여자를 所有物로 녀어온 남자들의 冢家하는 女性美의 표준이 저급하고 천박하여 남자의 완롱물되는 녀성이 외양의 美로 감뵈싸게 팔리게 되는 등 사실이 그들을 『허영생활』이라는 구렁에다가 모라들트리는 것이다. 즉 이 사회의 組織이 여자들로 하야곰 허영생활에 빠지지 아니치 못하게 하는 것이니 그 직접의 책임자는 이 사회를 그러케 조직하고, 또한 그러케 운용하는 男子이라 할 수가 있다(裴成龍, 「젊은 女性의 肉體美 實質美」, 『신여성』 제3권 제2호, 1925년 2월, 21~25쪽; 이화형 외, 『한국근대여성의 일상문화-2. 미용』, 국학자료원, 2004, 37쪽)에 수록된 텍스트).

이들의 울림과 파장은 결코 쉽거나 가볍지 않다. 목소리 속의 여성의 논리가 무조건 맞다고도 할 수 없으며, 남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소모적 논쟁 썸으로 비취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참여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처럼 여성은 사치 비난의 담론장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남성과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담론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질서에 내재한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모습은 de Certeau(1984)의 전술을 연상시킨다.

IV. 맺음말

식민지 조선의 사치 담론에 있어서 여성은 두드러진 비난의 대상이었다. 신여성이 담론에서 “과잉” 됐을 가능성이 존재하듯(김수진, 2009:458), 사치하는 여성에 대한 담론 또한 과잉됐을 가능성이 높다.²²⁾ 소수의 사례가 전체적 현상으로 일반화되며 차별적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과잉되었다 할지라도, 지배담론에서 발견된 사치하는 여성에 대한 비난의 시선은 남성의 우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근대적 젠더 질서의 균열로 불안해진 남성의 지위를 보여준다. 유한계층의 부인과 여학생이 사치 담론에서 주요 표적이 된 것도, 부와 학력을 소유한 이들이 남성의 지위를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식민지의 2등 국민이 된 것에 좌절당하고 봉건적

화장품으로 얼굴을 매질하고 갑가는 옷으로 몸을 휘감고 놀고먹는 白魚가튼 손에 보석 반지를 자랑하는 女人들(...) 그것은 결코 당신들 一個人的 의식덕 행동이 안이고 오늘날 社會의 학교교육과 男性本位の 도덕이 당신들에게 그런 행동을 無意識의으로 식히는 까닭이다(徐康百, 『眞實한 女性美는 이리타』, 『女人』 창간호, 1932년 5월, 16~18쪽; 이화형 외, 위의 책, 102쪽에 수록된 텍스트).

22) 실제로 연구공간 수유 너머 근대매체연구팀(『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16쪽)의 연구를 참고하면, 당시 여학생의 인구는 전체 여성 중 0.6%, 중등 교육 이상으로 보면 0.0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소수였음을 알 수 있다.

질서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위협당한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는, 그들이 주도하는 담론장에서 사치하는 조선의 여성을 비난하거나, 남성에게 의존하는 여성의 사치를 지적함으로써 잃어버린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또한 다양한 여성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호한 모던걸의 이미지로 포괄하여 하나의 표적을 만듦으로써 손쉽게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성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성을 향한 사치 비난의 담론이 남성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상의 등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이 새로운 여성상은 그저 침묵하고만 있었을까 하는 의문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본문에서 그 대응 양상을 살폈다. 이에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비난의 대상이 된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은 침묵하고 있었을까. 둘째, 사치 소비를 통해 여성이 사회적 참여와 해방을 성취한 면은 없었을까. 셋째, 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de Certeau(1984)가 주장한 권력에 균열을 주는 전술은 없었을까. 앞서 본문에서 서술되었지만, 이를 간단히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은 사치 담론에서 그들을 향한 비난에 침묵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난의 주체가 되어 남성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치 배척 운동을 주창하는 목소리를 내고 실천했으며,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공적 담론장에 필자로 참여하여 여성의 사치를 둘러싼 비난을 정면으로 반격했다. 둘째, 사치 소비를 통해 여성이 사회적 참여와 해방을 성취했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 소비의 행위가 사회적 참여와 여성 해방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²³⁾

23) 소비를 통한 해방의 가능성은 서지영(「소비하는 여성들: 1920-30년대 경성과 욕망의 경제학」, 『한국여성학』 제26권 제1호, 2010, 138~150쪽)의 III장과 IV장을 참고하여 생각할 수 있다. 소비와 소유 행위를 통해 여성이 욕망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주체성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이들 여성도 결국은 소비 자본주의의 덫에 걸린 희생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해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세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

는 본고의 초점이 아니기에 단정짓기 어렵지만, 앞서 언급했듯 사치 비난의 움직임에 동조하거나(사치 배척 운동), 담론장에 참여하는 행동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실천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해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어진 지배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창조적으로 자신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미세하게 권력을 전복시키는 de Certeau(1984)의 전술(tactic)은 발견되었다. 여성들은 사치 배척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남성 본위의 지배 질서가 유도하는 민족주의적 소비의 당위성에 동의했지만, 그 안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자신들의 창조적 영토를 만든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담론장에서 남성과 대립하여 사치에 대해 토론하는 가운데, 남성이 여성을 비난하는 데 사용한 논리의 허점을 공격하며 지배담론의 권력에 미세한 균열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활발히 논의된 모던걸 담론에서 나아가, 이에 대응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행동까지 살피고 그 의미를 제시한 데 의의와 성과가 있다. 못된 모던걸로 표상되는 근대 여성을 향한 비난 담론에서 두드러진 것이 그들의 외양인데, 화려한 외모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사치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사치 담론을 연구대상으로 해서 여성들의 대응을 살핀 결과, 근대 여성이 담론의 희생자로만 그려질 수 없음을, 담론에 참여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음을 주장했다. 미약하나마 당시의 여성들은 합의와 투쟁의 전략을 구사하며 기존의 젠더 질서에 나름의 정치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각주 3에서 밝혔듯 de Certeau(1984)의 '전술'이라는 것이 전복을 논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개벽』
『동아일보』
『신여성』
『중외일보』

2. 단행본 및 논문

- 권미경, 「차이와 차별: 한국 근현대 사치 소비의 문화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권창규, 『상품의 시대』, 민음사, 2014.
- 그람시 안토니오, 이상훈 역, 『그람시의 옥중수고: 2편』, 거름, 1999.
- 김경일, 「서울의 소비문화와 신여성: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9, 2002, 227~262쪽.
- _____,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 김상기,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아모스의 마르제악과 한국 명품문화 연구: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57, 2012, 153~190쪽.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 김주리, 『모던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근대적 패션의 풍경』, 살림, 2005.
- 서지영,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 1920-30년대 경성 거리의 여성 산책자」, 『한국여성학』 22-3, 2006, 200~227쪽.
- _____, 「소비하는 여성들: 1920-30년대 경성과 육망의 경제학」, 『한국여성학』 26-1, 2010, 127~156쪽.
- _____, 『경성의 모던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3.
- 설혜심, 「여성과 소비의 역사」, 『여성과 역사』 20, 2014, 255~285쪽.

- 설혜심, 『소비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7.
- 스피박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 심옥경, 「192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고찰: 기독교계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 연구공간 수유 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 우드퍼드 존, 여울한 역, 『허영의 역사』, 세종서적, 1998.
- 이화형 외, 『한국근대여성의 일상문화-2. 미용』, 국학자료원, 2004.
- 정인숙, 「조선 후기 도시의 발달과 여성의 소비문화에 대한 담론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2012a, 221~258쪽.
- _____, 「근대전환기 서울의 도시화와 음녀를 둘러싼 담론의 성격」, 『국문학연구』 26, 2012b, 245~276쪽.
- 조기준, 「朝鮮物産獎勵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歷史的 性格」, 『역사학보』 41, 1969, 84~118쪽.
- 최병택·예지숙, 『경성리포트』, 시공사, 2009.

Adams, W. H., *On Luxury: A Cautionary Tale: A Short History of the Perils of Excess from Ancient Times to the Beginning of the Modern Era*,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12.

Berry, C. J., *The Idea of Luxury: A Conceptual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De Certeau, M.,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S. Rendall, Tr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Sekora, J., *Luxury: The Concept in Western Thought, Eden to Smollet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Abstract

WOMEN'S RESPONSES TO LUXURY DISCOURSE IN COLONIAL
KOREA AND ITS MEANINGS

KWON MIGYOUNG (KWON, MI GYOUNG)

In male-led discourse, women have often been accused of luxury consumption. So did women in colonial Korea. Modern women in colonial Korea were consistently blamed for luxury consumption and were morally criticized in the luxury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women responded to this dominant discourse produced by males. After reviewing the historical data from newspapers and magazines at the time, it was concluded that women were not silent on the luxury discourse toward them. The reasons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women also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nationalist anti-luxury consumption movement planned and led by men. This was interpreted as an agreement to the dominant discourse and a phenomenon showing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increased power. Second, as a more direct response to the luxury discourse, women appeared directly in the discourse to actively refute the criticism and misunderstanding of the luxury consumption surrounding them. This paper interpreted this as the possibility of women as active subjects who could crack the governing ideolog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it was possible to find the active role of women and the possibility of subversion in the luxury discourse in colonial Korea.

한국문화연구 40

Key Words : luxury consumption, discourse, colonial Korea, woman, subject